

성대구증 환자의 음성기능 분석 한경열*, 남순열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중앙병원 이비인후과

서론 : 성대구증은 음성장애를 주소로 외래로 찾아오는 환자에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으나, 그 병인이 불명확하고 그간의 치료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간과하기 쉬운 질환이다. 저자들은 이러한 성대구증 환자들의 음성기능 분석을 통하여 향후의 치료효과를 알아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7년 1월부터 1997년 7월까지 서울중앙병원 이비인후과를 방문한 환자 중 간접 후두경술과 스트로보스코피를 통해서 성대구증으로 진단된 환자 26명(남자 14명, 여자 12명)을 대상으로 음향분석 및 공기역학적 검사, 스트로보스코피 등 일련의 검사를 실시하였다. 음향 분석은 CSL 4300B(KAY Elemetrics Corp.)의 MDVP(Multidimensional voice program)를 이용하여 기본주파수(Fundamental frequency), jitter, shimmer, NHR(noise to harmonic ratio)을 분석하였고, 공기역학적 검사에서는 최대발성 지속시간(Maximal comfortable phonation time)과 평균호기유율(Mean air flow rate)을 측정하였으며, 스트로보스코피를 통해서 성문간격과 성대진동, 성역 등을 관찰하였다.

결과 : 음향분석상 16명(62%)에서 jitter값의 증가가 나타났고, 공기역학검사상 11명(41%)에서 최대발성지속시간의 증가 및 11명(41%)에서 평균호기유율의 증가를 보였으며, 스트로보스코피를 통해서 20명(79%)에서 발성시 성문 폐쇄부전이 관찰되었다.